

재난 외교와 라이벌리 화해 상관관계 연구 - 튀르키예-그리스 재난 외교의 한시적 효과를 중심으로 -

유재광 ■ 경기대학교*

〈국문요약〉

거대한 자연재해-특히 지진과 쓰나미-는 일종의 구조적 충격(structural shock)이다. 이런 자연재해가 국제정치 특히 국제 라이벌리(international rivalries) 동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최근 들어 다수 논의되고 있다. 자연재해의 평화적 효과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자연재해가 라이벌 국가 간의 여론에 영향을 미쳐 양국 지도자들과 시민사회에 인도주의적 연대감을 불러일으켜 재난 외교(disaster diplomacy)를 활성화하고 이 외교가 결국 국가들 상호 간 적대적 인식을 이완시켜 라이벌리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 주장을 펼친다. 본 논문은 이런 자연재해와 라이벌리 화해 간의 낙관론에 비판적 주장을 제안한다. 이른바 재난 외교의 한시적 화해 효과(a transient effect of disaster diplomacy) 이론에 근거 자연재해가 라이벌 국가 간 재난 외교를 활성화해 관계 개선에 기여하나 이런 효과는 한시적으로만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불가역적인 라이벌리 화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자연재해로 두 라이벌 국가가 재난 외교를 가동했다라도 이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근본적인 이슈-특히 영토/영해 갈등-로 대립해 온 이슈 라이벌리(issue rivalries)일 경우 정치 지도자들이 이슈에 대한 제로섬적 시각과 국내 강경파로부터의 청중 비용 때문에 화해 형성에 제약 받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재난 외교의 상징인 튀르키예와 그리스 간 두 번의 재난 외교(1999년 및 2023년의 재난 외교)에 초점을 두어 입증하고 이 입증 결과가 향후 라이벌리 연구에 제공하는 함의를 밝힌다.

*주제어: 이슈 라이벌리, 튀르키예, 그리스, 자연재해, 재난 외교, 한시적 효과이론, 화해

I. 연구 쉼표

숙적(宿敵) 관계라 불리는 라이벌리는 두 개의 국가가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적국(enemy)으로 인식하며 군사 분쟁을 포함한 대결적 관계를 장기간 지속하는 적대적 양자관계를 지칭한다(Thompson 2001, 558).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라이벌리의 탄생, 유지, 그리고 종결에 관한 원인을 중심으로 방대한 연구를 축적해 왔다. 라이벌리가 국제정치 학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적대적 국가관계에 속한 국가들이 대다수 전쟁의 주범(culprit)이며 군비경쟁의 중심에 위치하며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정세 불안의 핵심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라이벌리 학자들은 이 반(半) 영구화된 적대 국가관계를 화해시키고 결국 종결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연구해 왔다.

라이벌 국가 간의 화해 및 종결에 관해 기존의 학자들이 주목한 변수는 다양한 구조적 충격(structural shocks)이다. 라이벌리 자체가 두텁게 제도화된 적대감을 특징으로 하므로 여기에 속한 국가들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대한 구조적 충격이 이 적대감을 흔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맥락에서 커다란 전쟁 혹은 급격한 상대적 힘의 변화 그리고 라이벌 국가 내부의 레짐 변화(regime change)-즉 민주화 혹은 권위주의화와 내전 등의 구조적 충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Diehl & Goertz 2001, 227). 이러한 구조적 충격이 선행되어야 라이벌 국가 지도자들의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화해와 적대관계 청산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구조적 충격의 하나로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의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연재해가 추동한 이른바 재난 외교(disaster diplomacy)에 주목하면서 이를 라이벌 국가 간의 화해(rapprochement)와 적대관계 청산 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라이벌 국가 중 어느 한쪽이 거대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것이 구조적 충격으로 작용하여 상대 라이벌 국가 지도자들과 대중으로 하여금 재난 외교를 수행하게 만들고 이 재난 외교가 양국 간 화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난 외교는 라이벌 국가 대중 간에 동정심(sympathy)을 유발하고 우리라는 정체성의 등장을 가져와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적대감을 접어두고 불가역적인 화해에 나서도록 만든다는 것이다(Akcinaroglu et al. 2011, 260; Ganapati et al. 2010; Kelman 2006).

본 논문은 이런 자연재해의 라이벌리 화해 및 종결에 관한 논의를 좀 더 라이벌리 지속(rivalry maintenance)이라는 입장에서 이해하려 시도한다. 분명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재난 외교 노력이 라이벌 국가 간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이런 노력은 라이벌리 지속의 주요 원인인 갈등적 이슈의 해결로 이어지기 어렵고 따라서 자연재해의 라이벌리 화해 및 종결에 관한 효과는 한시적이라는 “재난 외교의 한시적 화해 효과 이론(a theory of transient effect of disaster diplomacy)”을 대안적 분석 틀로 제시한다. 자연 재난이라는 구조적 충격이 추동한 화해는 결국 단발성으로 한시적으로 지속될 뿐이며 라이벌 국가 간 핵심 갈등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전의 적대적 관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자연재해와 재난 외교 그리고 라이벌리 화해에 관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장단점을 식별하고 대안적 분석 틀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제3장에서는 대안적 분석 틀로 자연재해가 라이벌리 화해에 가져오는 화해 효과의 한시성을 강조하는 “한시적 화해 효과이론”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가설을 도출한다. 다음 장에서는 튀르키예-그리스 라이벌리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재난 외교 즉 1999년 재난 외교와 2023년 재난 외교를 대상으로 한 중요사례연구를 수행하고 여기서 도출된 경험적 증거가 3장의 가설을 지지함을 밝힌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간단히 요약하고 본 연구가 향후 라이벌리 화해 연구에 제공하는 함의를 제공한다.

II. 자연재해와 라이벌리 화해에 관한 논쟁

라이벌리 연구에서 자연재해와 라이벌 국가 간의 화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가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라이벌 국가 간 적대감 자체가 매우 높은 관성(inertia)에 의해 반(半)영구적인 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흔들리기 위해서는 거대한 구조적 충격(structural shocks)이 필요하고 자연재해 역시 이러한 충격의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라이벌리 학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자연재해와 라이벌 국가 간의 화해(rapprochement) 간의 상관성이다.

이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소위 말하는 재난 외교(disaster diplomacy)를 이론화한 학자들에 의해 그 기틀이 놓이기 시작했다. 재난 외교의 개념을 최초로 제기한 켈만(Ilan Kelman)에 의하면 재난 외교 연구는 재난에 관련된 활동들

(disaster-related activities)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적대 국가 간 갈등과 협력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다(Kelman 2006, 215).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연재해가 인도주의적 호소에 기반한 정부 간 혹은 비정부 행위자 간의 재난 외교로 이어지고 이것이 적대국 간 연대감 형성을 도와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 외교를 라이벌리 국가 간 화해에 적용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적대 관계에 놓여 있던 두 라이벌 국가 중 어느 한 국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경험한 경우 이 피해가 자연재해의 피해를 보지 않은 상대 라이벌 국가의 대중들의 인도주의적 본능과 관심을 일깨우고 이들 대중이 자신들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본 상대국에 적극적인 재난 외교를 펼치도록 압박하며 결국 라이벌 국가 간 관계 개선과 돌이킬 수 없는 화해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재난으로 발생한 라이벌 국가 내부의 청중 비용(audience cost)이 화해 외교를 이끈다는 주장이다(Akcinaroglu et al. 2011, 260; Ganapati et al. 2010, 164). 단 이 연구들은 아무리 자연재해로 라이벌 국가간 재난 외교가 진행되고 이것이 양국 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도 양국의 대중들이 상호 간의 상시적인 폭력(routine violence)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재난 외교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감소시켜 재난 외교의 라이벌 화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재난 외교-적대 국가 간 화해리는 분석 틀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켈만(Ilan Kelman)과 그의 동료들은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을 연구하면서 대 지진이 자무와 카쉬미르(Jammu and Kashmir)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교류 재개와 협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양국 간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실증하였다(Kelman et al. 2018). 예거(Shay Yeger)와 포들러(Guy Podoler)는 단발성 자연재해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전개되는 북한의 기아(famine) 문제에 초점을 두어 이 재해가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의 기폭제가 되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Yeger & Podoler 2022). 자연재해가 내전 즉 정부군과 반군 간의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게일러드(Gaillard)와 그의 동료들은 2004년 12월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tsunami)가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아체(Aceh) 반군 간의 평화협정 노력을 추동했음을 실증하고 있다(Gaillard et al. 2008, 511).

자연재해의 라이벌리에 대한 효과에 관한 이런 연구들은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구조적 충격 변수인 자연재해를 라이벌리의 화해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공헌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전쟁, 민주화 및 정치 체제 변

동, 내전 등 고전적 구조적 충격에만 관심을 기울여 막상 이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라이벌리 화해나 종결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라이벌리 연구의 짙은 회의주의를 극복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의 라이벌리 화해에 관한 연구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자연재해와 이에 동반되는 재난 외교가 과연 수십 년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제도화된 앙금을 견어내고 불가역적인 화해를 가져올 만한 거대하고 심각한 충격인지 의문이 존재한다. 또한 몇몇 연구는 자연재해와 재난 외교가 적대 국가 화해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며 오히려 이들 간의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반대의 주장도 하고 있다(Lee et al. 2022; Reinhardt & Lutmar 2022).

동시에 라이벌리에 빠져든 국가들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겪고 재난 외교를 수행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외교에 관한 양국 대중들의 강한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라이벌 간 화해 그리고 종결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라이벌 국가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수십 년 지속하는 이유는 대중들의 화해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대부분 나눌 수 없는 파이(indivisible pie)로 상징되는 핵심적 갈등 이슈로 수십 년간 대립하는 이슈 라이벌리(issue rivalries) 이기 때문이다. 이들 라이벌 국가는 제로섬(zero-sum) 갈등의 시각으로 이슈를 바라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설령 재난 외교가 작동한다 해도 이슈에 대한 중구적인 해결에 기반한 불가역적인 화해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재난 외교에 기반해 라이벌 간 화해를 설명하려는 기존 연구들은 이 어려움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 장에서 자연재해의 한시적 화해 효과이론을 대안적 분석 틀로 제시하고자 한다.

III. 분석 틀: 자연재해의 한시적 화해 효과

라이벌리는 두 개의 국가가 거대한 구조적 충격-즉 대규모 전쟁, 영토 주권의 커다란 변화, 상대적 힘의 분포 급진적 변화, 독립의 쟁취, 내전의 발생 그리고 민주화를 포함한 정치 체제의 변화-으로 인해 상호적대감에 빠져들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두 국가의 지도자들이 서로를 명확한 적(enemy)으로 보는 심리적 부담감(psychological baggage)에 사로잡혀 핵심적 갈등 이슈에 관해 대립하며 군사적 분쟁을 포함한 적대적 행위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양자관계를 일컫는다

(Diehl & Goertz 2001; Thompson 2001). 이 라이벌리의 가장 큰 특징은 반(半) 영구화된 적대감과 이 적대감의 안정성(stability)이다. 웬만한 대내외의 충격에 구애받지 않고 양국 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남·북한을 비롯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스와 터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이 현재 진행 중인 라이벌리의 대표적인 예이다.

국제정치에서 라이벌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적대감이 오랫동안 제도화된 라이벌리가 화해(rapprochement) 혹은 종결(termination)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구조적 충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제도화되고 장시간 지속되어 양측에 적대관계 유지를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이 폭넓게 존재하므로 거대한 구조적 충격이 이 기득권을 흔들지 않고서는 라이벌리 화해와 종결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라이벌리 화해를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에서는 라이벌 국가들이 당사자인 세계대전이나 전면전 또는 이들 국가 간 상대적 힘의 분포에서 극단적인 변화 그리고 국내적 수준에서는 이들 국가 내부의 민주화 혹은 권위주의화 혹은 내전과 같은 구조적 충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Bennett 1997, 249-252; Bennett 1998, 1200-1201; Diehl & Goertz 2001, 223-226; Goertz & Diehl 1995, 30-33).

최근에는 일군의 학자들은 라이벌리 종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영구화된 적대감에 빠진 라이벌 국가들이 불가역적인 화해(an irreversible rapprochement)에 다다를 수 있는 하나의 구조적 충격으로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에 주목하고 있다. 라이벌리 화해에서 자연재해에 관한 관심은 자연재해가 적대관계 국가들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재난 외교(disaster diplomacy)¹⁾의 통찰을 라이벌리 연구에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재난 외교 연구자들이 입증한 점은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중 어느 한 국가가 심각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우 그 상대방이 재난 외교를 가동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것이 촉매(catalyst)가 되어 양국 간 화해를 위한 기회의 창(a window of opportunity)이 열리며 양국의 지도자들과 국민이 이 창을 이용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연대감을 형성하여 결국 화해(rapprochement)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Kelman 2006; Kelman et al. 2018).

일군의 라이벌리 연구자들은 이런 재난 외교의 통찰을 라이벌리 화해에 적용하여 라이벌리 국가 간 재난 외교의 공식이 작동할 경우 라이벌 국가 간 불신

1) 재난 외교(disaster diplomacy)의 공식적인 정의는 재난의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에 대응하며 그리고 재난의 피해를 복구하며 예방하는 활동과 관련된 국가 간 외교활동이다. 좀 더 자세한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Kelman (2006, 215)를 참고할 것.

과 분쟁의 악순환이 멈추고 화해와 협력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라이벌 국가 간 일상화된 정치적 폭력이 부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거대한 자연재해가 라이벌 국가 양자 중 어느 한 국가를 강타할 경우 이것이 피해를 보지 않은 라이벌 국가 대중의 인도주의적 관심과 동정심을 자극하고 이 대중이 자국 지도자들의 재난 외교를 압박하게 되면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재해 피해국 역시 화해와 협력 아젠다로 화답하는 틈-포-틈 재난 외교(tit-for-tat disaster diplomacy)라는 선순환이 만들어져 라이벌 국가 간 되돌릴 수 없는 관계 개선 혹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Akcinaroglu et al. 2011, 262; Kelman 2006, 215-216).

하지만 본 논문은 라이벌리 연구에서 자연재해나 재난 외교가 화해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친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연재해가 라이벌 국가 간에 가져오는 화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며 이 화해는 언제든 지 대립적 관계로 역전(a reverse) 가능하다는 자연재해의 “한시적 화해 효과(transient effect of natural disasters in fostering a rapprochement among rivals)” 이론을 대안적 분석 틀로 제시한다.²⁾

라이벌 국가 간의 자연재해는 분명 인도주의적 관심의 등장을 가져와 양국 간 화해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다. 특히 재난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적은 사례이지만 양국 모두가 자연재해를 비슷한 시기에 경험할 경우 이 기회의 창은 좀 더 폭 넓게 열릴 것이다. 이 기회의 창은 양국 정치적 엘리트 차원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하는 재난 외교를 활성화하고 대중 차원에서는 자발적 인도주의적 관심과 연대감을 촉발하여 엘리트 차원의 재난 외교를 압박하여 라이벌 국가 간 화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양국은 우리라는 정체성의 등장을 경험하며 지난날의 적대적인 관계를 되돌아 보고 연대(solidarity)에 기초해 화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가 추동한 재난 외교의 효과는 라이벌리 맥락에서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이론의 핵심적 주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라이벌 관계에 빠진 대다수의 국가들이 상호 적대관계를 중장기적으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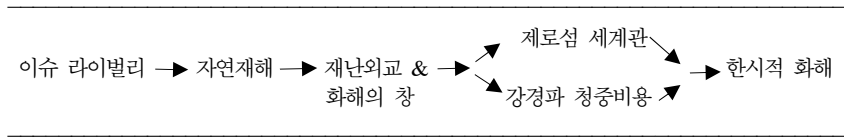
2) 한시적 효과와 관련 한시적이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에서는 자연재해와 이것이 추동한 재난 외교의 화해 고양 효과는 자연재해 발생 시기로부터 2-3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튀르키예-그리스 사례에 관한 귀납적 관찰에 근거한 것일 뿐 이 한시적/일시적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지는 본 논문에서 제기된 재난 외교 한시적 효과를 전체 라이벌리를 대상으로 한 계량적 연구를 수행된 후에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향후 양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할 수밖에 없는 이슈 라이벌리(issue rivalries) 라는 점에 있다. 이슈 라이벌리는 라이벌 관계에 빠진 국가들이 해결이 극도로 어려운 갈등적 이슈와 관련해 오랜 대립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이슈 해결을 위한 군사적 충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Mitchell & Thies 2011, 231). 즉 극도로 해결이 어려운 이슈를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 해결되지 않은 이슈에서 기인한 적대감이 지속된다는 것이 이슈 라이벌리의 핵심적 특징이다. 이렇게 해결이 요원한 대표적인 이슈가 영토(혹은 영해) 주권 갈등과 여기에서 기인하는 안보딜레마 문제이다. 이른바 나눌 수 없는 파이(indivisible pie) 문제로 불리는 영토 혹은 영해권 문제는 단순한 소유권 문제를 떠나 경제적 이득은 물론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적 담론 그리고 각종 문화적 상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해결이 극도로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Dreyer 2012; Hensel 1999; Vasquez 1993; Vasquez 1996). 게다가 영토와 영해에 관한 정반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라이벌 국가들은 이곳에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 군사적 요새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꾸준한 군사력 증강(military buildup)을 하면서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자연재해의 재난 외교가 라이벌리의 종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불가역적인 화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난 외교의 화해 효과 노력이 갈등적 이슈-즉 영토(영해)갈등-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반드시 ‘확산(spillover)’ 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자연재해가 촉매제가 되어 양국 지도자들 스스로가 서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접어두고 재난 외교를 수행하고 이에 고무되어 영토나 영해 분쟁과 같은 갈등적 이슈의 영구적 해결에 나서거나 아니면 라이벌 국가 대중들이 재난 외교를 배경으로 지도자들에게 영토나 영해 갈등의 노력에 나서도록 지도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재해가 만들어 낸 구조적 충격은 이러한 화해 흐름을 만들어 내기에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 효과만 지닐 가능성이 큰데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다.

가장 먼저 자연재해가 촉발한 재난 외교를 배경으로 두 라이벌 국가가 영토나 영해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하더라도 양국 지도부는 해당 이슈를 제로섬(zero-sum) 시각에서 바라볼 유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협상에서 지나치게 양보할 경우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양보가 상대방의 안보 이익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자국 안보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형적인 제로섬(zero-sum) 시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asler & Thomson 2006, 145; Stinnett & Diehl 2001, 724; Walter 2003, 137-138). 두 번째 이유는 지

도자들이 영토나 영해 갈등 이슈 해결에서 지나친 양보를 할 경우 양국 내부에 강력한 민족주의 정치그룹 혹은 매파 그룹의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이벌 국가 간의 영토분쟁 해결 노력에 관한 방대한 연구에 의하면 영토분쟁을 해결하려는 지도자는 민족주의 정서에 기대 매파 정치인과 그 지지그룹으로부터 상당한 청중 비용(audience costs)을 부담해야 한다. 적에게 조금만이라도 이로운 협상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이 세력들은 지도자들의 화해 노력을 과잉 협력(over-cooperation)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징벌하려 하기 때문이다(Colareasi 2004, 555-556; Colareasi 2005, 30-31; Hensel 1999, 112; Huth 1998, 94-95; Vasquez 1993, 207). 이러한 이유로 재난 외교를 수행하는 라이벌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재난 외교에서 비롯된 화해 모멘텀을 양국의 영토/영해 분쟁의 노력으로 이어가는데 주저하게 된다. 2005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 대지진으로 촉발된 인도-파키스탄 간의 재난 외교 노력이 양국 간의 전례를 찾기 힘든 외교적 대탕트(detente)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양국 지도자들의 상대적 이득에의 집착과 국내 강경 매파 그룹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카슈미르 문제의 종국적 해결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이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Mustafa 2006, 34-35). 이상 논의된 재난 외교의 한시적 효과 메커니즘은 아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재난 외교의 한시적 화해 효과 메커니즘

종합하자면 구조적 충격으로서 자연재해는 라이벌 국가 간의 재난 외교를 활성화 양국 간 화해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화해 효과는 한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라이벌 국가들이 영토분쟁과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를 보유한 이슈 라이벌리인 상태에서 라이벌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연재해가 추동한 재난 외교의 노력을 라이벌 관계 지속의 근원이 되는 갈등적 이슈-영토분쟁-해결 노력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제로섬적 세계관과 국내 정치적 도전이라는 제약을 마주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화해 노력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 외교가 창출한 화해는 한시적 화해에

머물게 된다. 이상의 주장을 요약하면 자연재해가 유도한 협력과 화해의 모델은 라이벌 국가 간 한시적 화해 효과를 제공할 뿐이며 이 효과가 곧 사라짐과 동시에 해당 국가들은 갈등적 이슈의 재등장으로 다시 적대적 관계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로 구체화 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튀르키예와 그리스 간의 1999년과 2023년의 두 차례 재난 외교를 대상으로 한 중요사례연구(crucial case study)를 통해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본다.

IV. 경험적 증거

1. 튀르키예-그리스 이슈 라이벌리 소사(小史)

튀르키예와 그리스 간의 적대적 관계는 그리스의 오토만제국에서의 독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는 약 400년간의 오토만제국(근대 튀르키예의 전신)의 통치를 받아오다 독립전쟁을 벌여 독립한 관계로 튀르키예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했으며 튀르키예는 반대로 그리스의 독립을 반란(rebellion)으로 인식하면서 양국의 근대적 적대관계는 시작된다.

이러한 튀르키예와 그리스 간의 갈등적 관계가 본격적인 라이벌리로 진화하는 것은 1950년대이다. 1952년 집단안전보장 체제인 NATO에 동시에 가입 했지만 양국은 역사적 적대감을 배경으로 두 가지 핵심 이슈에서 대립하게 되는데 사이프러스 영토 주권 문제와 에게해/지중해 섬들의 소유권 문제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이슈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적대감을 발전 공고화시켰으며 이 이슈의 해결을 위해 다수의 군사 분쟁과 전쟁을 경험하며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You 2016, 140).

1960년 영국에서 독립된 사이프러스는 다수인 그리스계 사이프러스인과 소수인 튀르키예 사이프러스인이 주권(sovereignty)을 둘러싸고 대립하였고 모국인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각각 이들을 지지한다. 이런 대립은 몇 차례 충돌을 거쳐 1974년 전쟁으로 이어진다. 다수파인 그리스 민족주의 그룹이 튀르키예인 거주지를 공격하자 이 연장선상에서 1974년 쿠데타로 집권한 그리스 군부 리더 이오니다스(Dimitrios Ioannidis)가 온건파인 사이프러스 그리스 공동체 리더인 마카리오스(Makarios III)를 축출하는 쿠데타를 사주하였고 이것이 사이프러스 튀르키예인 거주지 안보를 위협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튀르키예는 1974

년 사이프러스를 전면 침공하고 튀르키예인 중심의 북사이프러스 정부(The 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를 수립하면서 사이프러스는 남북으로 분단 된다(Bahcheli 1990, 98).³⁾ 이후 양 정부는 반목과 대립을 지속하면서 수 차례의 군사 충돌 위기를 넘긴다. 2004년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의 중재로 사이프러스 분단을 해결하기 위한 아난 플랜(Annan Plan)이 가동되었으나 그리스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사이프러스 공화국은 2004년 홀로 EU에 가입한다(Sözen & Özersay 2007, 138-139). 하지만 EU 법의 적용은 사이프러스 문제 해결-즉 통일-까지 튀르키예가 장악한 북사이프러스 적용이 유예되어 사이프러스 이슈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양국 간 극심한 대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 간의 또 다른 갈등 이슈는 에게해/지중해 섬들의 소유권과 이 섬들 주변의 자원 개발권 문제이다. 지리적으로 에게해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는 두 라이벌은 이 바다의 소규모 섬들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일찍부터 대립해 왔다. 먼저 에게해 섬들의 소유권 문제가 1980-1990년대 불거졌으며 이 섬들 주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가스와 석유의 개발 문제 역시 양국의 첨예한 갈등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갈등은 1996년에 에게해의 작은 무인도 카르다/이미아 섬(Kardak/Imia islands)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군사 충돌로 비화한다(Athanassopoulou 1997, 76-77).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은 간신히 피했지만 양국은 2020년 지중해에서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사이프러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튀르키예는 그리스 주도의 동지중해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과 경제적 자원개발이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자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조사선(survey vessel)을 파견하였고 이에 대응해 그리스가 초계함을 급파하자 튀르키예가 초계함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함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군사적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Grigoriadis 2022, 811). 이후 긴장은 양국의 자제로 완화됐으나 양국의 해상주권과 관련된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따라서 튀르키예 그리스 라이벌리는 영토 및 영해 주권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전형적 이슈 라이벌리로 분류된다(You 2016, 139).

3) 사이프러스는 결국 그리스 사이프러스인 중심으로 구성된 사이프러스 공화국(Republic of Cyprus)과 터키계 주민으로 구성된 북사이프러스 튀르키예공화국(Türkiye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 TRNC)로 분단된다.

2. 1999 튀르키예 대지진과 튀르키예-터키 화해 노력

사이프러스와 에게해/지중해 섬 소유권 문제로 반세기가 넘는 대립을 이어온 튀르키예와 그리스 관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외교가 작동되고 이로 인한 본격적인 화해가 논의된 시발점은 1999년 튀르키예의 지진피해이다. 1999년 8월 17일 규모 7.6의 대지진이 튀르키예 북서부 이즈미트(İzmit) 지방을 강타하면서 15,000여 명의 사망자와 25,00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3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1939년 에르진칸(Erzincan) 지진 이후 튀르키예는 약 60년 만에 최악의 지진피해를 입게 되었다.

튀르키예 대지진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인접 라이벌 국가인 그리스였다. 그리스의 적십자(Red Cross)와 적신월 사회(Red Crescent Society)가 즉각적인 구호 활동에 들어갔고 그리스 정부는 긴급 구호팀인 이막(EMAK)을 구성해 튀르키예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지역에 즉시 파견하였다. 이 팀에는 훈련된 구호 인력뿐 아니라 지진학자들과 피해자를 구호할 의료팀도 포함되었다. 곧이어 그리스 간호사 대표단과 의료경험이 있는 6명으로 구성된 그리스 의회 대표단이 튀르키예로 파견되었다. 아울러 그리스는 두 대의 대형 소방 비행기를 튀르키예에 파견하였다(Koukis et al. 2016, 26).

그리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그리스 국민들의 자발적인 튀르키예 구호 활동 참여로 이어진다.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구호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테네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아테네 시민의 튀르키예 지진 구호기부금 모금행사가 열렸고 튀르키예에 민족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던 그리스의 메이저 언론들은 이즈미트의 비극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그리스 시민과 튀르키예 시민들 간의 연대(solidarity)감 형성을 북돋는다(Ker-Lindsay 2000, 221). 이 연대감은 그리스 국민들의 인도주의적 관심사를 고조시켜 막대한 기부금 모이고 이것이 튀르키예로 전달되도록 한다.

수도 아테네 시장과 주요 4개 도시 시장이 모여서 만든 5개 시 연합 구호조직 작전 연대(Operation Solidarity: OS)의 활동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들 조직은 5개 도시의 대튀르키예 구호 및 기부금 모집활동을 총괄하며 10개가 넘는 규모의 컨테이너 분량의 구호품을 튀르키예에 전달한다. 당시 아테네 시장인 아브라모풀로스(Dimitris Avramopoulos)는 이런 “대 튀르키예 구호 활동이 그리스와 튀르키예 국민이 하나가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여 당시 양국 화해 무드에 대한 기대를 맘껏 드러내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 샘(İsmail Cem)은 그리스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이런

양국 간의 재난 외교가 영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한다.⁴⁾

그리스의 인도주의에 기반한 재난 외교는 그리스 역시 지진피해를 입자 튀르키예에 의해 그대로 반복되었다. 1999년 9월 7일 그리스는 진도 6.0 수준의 강진 피해를 입어 143명이 사망하고 1600여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본다. 여전히 심각한 지진피해에서 회복 중이던 튀르키예는 즉각 그리스 지진피해에 도움이 손길을 내민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튀르키예의 적십자사(Red Cross)였다. 튀르키예는 아울러 자국의 수색 및 구호팀인 아쿿(AKUT)을 그리스에 파견할 수 있음을 알렸고 그리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아쿿의 사상 첫 번째 해외 미션이 성사된다. 튀르키예 주재 그리스 대사관 대사는 튀르키예 총리 에제비트(Mustafa Bülent Ecevit)의 외교·안보 참모로부터 전화를 받고 총리의 위로를 전해 들었다(Ganapati et al. 2010, 163).

튀르키예는 이어 그리스에 구호품을 즉각 전달했으며 양국 정부는 구호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합의한다. 튀르키예 주재 그리스 대사 코란티스(Ioannis Korantis)는 튀르키예의 유수 일간지들과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 시민들과 정부가 그리스 지진피해에 보내준 성원과 도움에 매우 감사한다고 말하며 그리스 대사관에 배달된 튀르키예 시민들의 수많은 위로 전문과 기부 물품에도 감사를 표하면서 이런 경험이 양국 정부가 갈등적 사안에서 서로 대화하며 화해를 추구하는데 주춧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발언한다(Ker-Lindsay 2000, 224).

이런 양국의 재난 외교는 양국 정치 지도자들 간의 공식적인 관계 개선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리스 외무장관 파판드레우(George Papandreou)와 튀르키예 외무장관 썸(Ismail Cem)은 양국의 화해 무드를 뒷받침하는 서신을 교환했고 1999년 6월 양국은 여행, 환경, 불법 이민, 조직범죄 그리고 테러리즘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 그룹(working group) 결성에 합의하였다. 이 워킹 그룹의 노력으로 양국은 1999-2009년 사이에 다양한 협력에 관한 양자 협정과 프로토콜 그리고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수 있었다(Koukis et al. 2016, 25). 두 라이벌 국가가 진정한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양쪽 정치권에서 나온 것도 이 시점이다.

이런 화해 무드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그리스 양국이 재난 외교가 추동한

4) https://www.mfa.gov.tr/the-assistance-made-during-the-marmara-earthquake_br_no_142--august-18_-2000.en.mfa. accessed 29 August 2024

양국의 화해 노력에 엄연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재난 외교에서 비롯된 화해 노력이 두 국가의 라이벌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갈등 이슈 해결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국의 재난 외교가 호혜와 상호이해에 기반한 일시적인 화해에 기여한 것은 분명했지만 이러한 화해 노력은 두 국가의 핵심적인 갈등 이슈 즉 사이프러스 문제와 에게해에서의 분쟁 해결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먼저 사이프러스 문제와 관련 1999년 재난 외교가 창출한 화해 모멘텀은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EU 가입을 조건부 동의하도록 추동한다. 그리스는 재난 외교가 가져온 화해 무드를 배경으로 튀르키예의 EU 가입에 조건부 동의할 경우 튀르키예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과 국제법에 입각해 사이프러스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Grigoriadis 2022, 803). 따라서 1999년 12월 EU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튀르키예는 그리스의 지지를 바탕으로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공식 획득한다. 이후 튀르키예는 각종 민주적인 국내 정치적 개혁을 추진하고 사이프러스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해결책 즉 아난 계획(Annan Plan)을 받아들여 이 계획에 기반해 사이프러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Onis & Yilmaz 2008, 137).

아난 플랜(Annan Plan)은 1999년 이후 진행된 튀르키예와 그리스 간의 해빙 무드를 배경으로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이 제시한 사이프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이니셔티브로 그 핵심 내용은 사이프러스와 튀르키예의 EU 가입을 촉매제로 삼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엔이 보증하고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지지하는 사이프러스 거주 그리스 및 튀르키예 공동체의 통일(unification)을 시도하지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⁵⁾ 이 플랜은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사이프러스와 튀르키예의 EU 가입을 사이프러스 문제 해결의 촉매제로 사용하고 주변 강대국 특히 미국과 영국의 외교적 지원을 확보하며 그리스와 튀르키예 정부의 사이프러스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고 종국적으로 사이프러스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그것이다(Michael 2007, 595-596).

하지만 이 야심 찬 계획은 이내 수많은 장애물에 봉착한다. 우선 아난 플랜의 시작을 위한 전제조건이던 튀르키예의 북부 사이프러스 내 군대 철수가 튀르키예의 자국 안보에 대한 우려로 실행되지 못했다. 그리스 내 매파 정치인들도 사이프러스 소유권에 대한 제로섬적 시각으로 회귀해 아난 플랜에 반기를 들고 나선다. 아울러 그리스의 적극적 외교로 EU 가입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리

5) <https://news.un.org/en/story/2004/03/99132>. accessed 29 August 2024

스인 공동체로 구성된 사이프러스 공화국(Republic of Cyprus) 자체가 튀르키예와의 EU 동시 가입을 조건으로 한 사이프러스 통일이 오히려 자신들의 자치권을 해칠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고려를 하면서 아난 플랜을 압도적인 반대(75.8%)로 부결시키고 만다.⁶⁾ 사이프러스 통일에 관한 그리스 터키 그리고 사이프러스 내 그리스/터키 공동체의 제로섬적 시각이 아난 플랜의 좌초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그리스와 튀르키예 간 재난 외교가 창출한 화해 무드는 재빠르게 식어 갔고 양국은 사이프러스 문제와 관련 기존의 대립적 관계로 회귀한다. 특히 2018년 사이프러스 주변 해역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튀르키예가 자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북쪽 사이프러스 주변에서 천연가스 개발에 착수하자 그리스와 사이프러스 공화국은 자신들이 권리를 갖고 있는 대륙붕을 튀르키예가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맹렬히 비난하며 튀르키예와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Alibabalu 2023, 95).

재난 외교가 창출한 양국 간 화해 무드는 양국 간 에게해 분쟁(the Aegean dispute)을 해결할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다. 2002년 초 양국은 재난 외교가 가져온 화해 분위기에 올라타 에게해 분쟁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은퇴한 고위 관료로 구성된 그리스-튀르키예 포럼(Greek-Turkish Forum: GTF)의 트랙 II 외교가 이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포럼의 활동에 힘입어 튀르키예와 그리스 정부는 에게해 갈등의 핵심 이슈인 대륙붕 획정 문제, 영해 및 영공 획정 문제 그리고 양국 간 회색지대에 속하는 수많은 에게해 섬의 소유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이미 1999년 EU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2004년까지 에게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로 가져가야 한다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합의한 양국은 에게해 갈등 해결 공식 협상을 선언하는 공동 성명(a joint statement)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이 성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에게해 갈등을 ICJ로 이관할 것에도 합의한다.⁷⁾

하지만 성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국의 입장 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었다. 입장 차의 핵심은 양국이 에게해 소유권 문제를 전형적인 제로섬(zero sum)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점이다. 그리스는 에게해 그리스 소유 섬들 주민들의 주장에 기반해 섬의 10마일 대륙붕 연장 인정과 이에 비례하는

6) <https://news.un.org/en/story/2004/04/101352>. accessed 29 August 2024

7) https://www.europarl.europa.eu/enlargement/briefings/7a1_en.htm. accessed 10 September 2024

영해 및 영공권을 요구하였는데 튀르키예는 이런 요구가 주변 터키 관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하였고 결국 에게해 문제 외교적 해결 노력은 교착상태에 빠진다(Christofis 2022, 4). 이후에도 양국은 에게해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지속해 가지만 튀르키예의 EU 가입 가능성이 튀르키예의 국내문제-특히 민주주의의 쇠퇴-로 멀어지고 그리스 쪽에서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신민주주의당(New Democracy Party)이 집권하면서 협상의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특히 신민주주의당의 카라만리스(Kostas Karamanlis) 대통령은 튀르키예와 에게해 문제를 ICJ에서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의 국익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선다(Heraclides 2011, 231).

이 시기 그리스를 강타한 부채위기 역시 에게해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친다. 2009년 그리스가 유로존 및 외국에서 빌린 막대한 부채를 갚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며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자 그리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협상력이 현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스가 라이벌 튀르키예와 에게해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비판론이 득세하였고 이 결과 그리스는 에게해 문제 해결 협상에서 후퇴한다. 결국 이로써 에게해 분쟁 해결은 다시 한번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에게해 문제와 관련 이전의 적대적 관계로 회귀하고 만다. 2006년 에게해 상공에서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F-16 전투기가 충돌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튀르키예 공군기가 그리스 수상과 참모총장을 수송하던 헬기의 에게해 상공 비행을 방해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에게해 긴장 수준은 최고조에 이른다(Solomotis 2023, 617). 재난 외교가 촉발한 화해 모멘텀은 양국이 참여한 갈등 이슈 해결에 실패하자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내 양국은 기존의 적대적 관계로 회귀해 버린 것이다.

3. 2023년 튀르키예 대재앙과 재난 외교의 재가동

튀르키예는 2023년 2월 또 한 번의 대지진 피해를 본다. 규모 7.8의 튀르키예 역사상 가장 강한 지진이 가지안테프 주(Gaziantep ili)를 비롯 중부와 남부 지방을 강타해서 최소 170,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다. 지진이 발생하자 국제사회의 구호 노력은 즉시 시작된다. 1999년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는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을 내민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지진 후 그리스 정부는 구조 및 수색팀을 즉시 파견하였고 의료인과 구호 물품을 제공하였다. 그리스는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역시 튀르키예에 제공했으며 터키 정부와 구호 노력을 조정했다. 특히 지진 직후 그리스의 외무장관 덴디아스(Nikos Dendias)는 튀르키예 외무장관 카부소글루(Mevlüt Çavuşoğlu)와 함께 지진 피해지역을 둘러보며 1999년 그리스-튀르키예 간 재난 외교를 언급하면서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양자관계를 향상키 위해 또 다른 지진이나 재난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양국은 대화를 통해 양국의 차이들을 진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한다.⁸⁾ 튀르키예의 지진에 맞서 재난 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구호 노력도 이어진다. 그리스와 심지어 사이프러스 그리스 공동체에서도 튀르키예 재난 지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 운동이 펼쳐진다. 모금 운동으로 구매된 구호품이 양국 구호단체를 통해 튀르키예로 전달되었고 이런 노력은 양국 국민 간 연대 의식으로 이어져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그리스는 템페 계곡(Tempe Valley) 남부지역에서 열차 충돌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겪는다. 튀르키예는 이 사고에 위로와 지원을 전한 첫 번째 그룹의 국가 중 하나로 즉시 구조 활동담을 보냈고 그리스의 피해 회복 노력에 동참했다. 대지진과 열차 충돌 사건을 겪으면서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티-포-탯 재난 외교(tit-for-tat disaster diplomacy)를 추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 화해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재난 외교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화해의 성과로 이어진다. 양국은 서로의 국제기구 후보 자격을 지원하고 나섰으며 튀르키예는 숙적 그리스의 독립 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축하한다.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공식 대표단 교류가 좀 더 빈번해졌고 이러한 생산적 교류 활동이 양국의 주요 미디어에 보도되면서 양국 시민들의 소셜 미디어에는 연대와 공감을 표하는 게시물이 넘쳐나게 된다(Stelgias 2023, 45).

이러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차원의 재난 외교는 2023년 가을 7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튀르키예와 그리스 간 고위급 협력 회의(Greek-Türkiyesh High-Level Cooperation Council)가 다시 열리도록 추동한다. 이 회의 15일 후 튀르키예와 그리스 외무장관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만나 공통의 관심사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가장 민감한 이슈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8) <https://www.mfa.gov.tr/sayin-bakanimiz-in-yunanistan-disisleri-bakani-nikos-dendias-ile-gorusmesi-12-subat-2023-hatay.en.mfa>. accessed 29 August 2024

구축에 관한 협력 노력을 시작한다. 2023년 11월 튀르키예 국방장관이 주최한 양국 군부 간의 회담에서는 신뢰구축조치(C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s)가 본격 논의되었는데 양국은 이전에 합의했으나 실행되지 못한 CBMs을 2024년 전면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해 낸다.⁹⁾

양국 실무자급에서의 협력 노력은 최고 리더십 간의 화해 노력으로 확산된다.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과 그리스 미초타키스 수상은 UN 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만나 양국 간 무역과 경제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런 화해 무드를 배경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3년 12월 아테네를 공식 방문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리스 방문 중 그리스 대통령 사켈라로풀루(Katerina Sakelaropoulou)와 수상 미초타키스를 만나 친소 관계와 좋은 이웃 관계에 관한 ‘아테네 선언(the Athens Declaration on Friendly Relations and Good Neighborliness)’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한다. 이 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지속적이고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가며 양국이 원치 않는 긴장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 분야를 포함한 신뢰구축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합의한다.¹⁰⁾ 이때까지만 해도 재난 외교가 추동한 양국 간 진정한 화해는 곧 달성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23년 재난 외교로 만들어진 양국의 평화 프로세스는 곧 교착에 빠진다. 교착의 원인은 튀르키예가 먼저 제공하였다. 튀르키예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대(對)그리스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2023년 5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튀르키예 외무장관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ut Cavusoglu)가 “그리스가 튀르키예와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양국 사이에 지속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Psaropoulos 2023).

그리스 총리도 물러서지 않는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튀르키예 선거 이후 연설에서 그리스의 국방비 규모를 두고 “그리스는 전체 GDP의 2%를 국방예산에 쓰길 원하지 않지만 불행하게도 바로 인접에 그리스보다 거대하고 때때로 폭력적으

9) <https://www.mod.mil.gr/en/delegations-from-greece-and-turkiye-meet-for-confidence-building-measures/>. accessed 29 August 2024

10) 아테네 선언은 첫째 튀르키예-그리스 양국이 협력적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상호 인식하고 두 번째 두 국가가 보유한 연대감이 지역의 변명과 역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이 우정과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테네 선언 전문은 다음을 참고할 것.

<https://www.primeminister.gr/en/2023/12/07/33195>. accessed 29 August 2024.

로 행동하는 이웃 국가-즉 튀르키예-를 마주하고 있으므로 국방예산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튀르키예 정부가 지속적으로 에게해의 그리스 소유 작은 섬들을 침공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지금 시기 온전히 신뢰와 선의의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발언하며 튀르키예와의 종국적인 화해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Stelgias 2023, 48). 오래된 에게해 섬 소유권 문제와 관련 양측의 제로섬(zero sum) 인식이 또다시 두 국가 화해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런 설전은 구체적인 군사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2023년 10월 튀르키예는 주라파 섬(Zourafa islet) 부근의 에게해에서 자신의 주권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군사훈련에 돌입하면서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en: NOTAM)를 발표한다. 그리스가 실효적 지배를 하는 이 에게해의 작은 섬에 튀르키예는 자국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리스가 섬의 소유권을 획득한 1923년 로잔 조약(the Lausanne Treaty)과 1947년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Treaties)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그리스는 이에 즉각 반발하면서 동일한 NOTAM을 발표하고 튀르키예의 NOTAM이 커버하는 지역이 그리스 영토 주권 지역과 겹친다고 비난한다(Yaşar & Bayraktar 2023, 69).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리스 총리와 유엔총회 직전 회담에서 양국 간의 협력과 친선을 논의한 직후 나온 군사적 위기기에 재난 외교가 가져온 화해 노력의 정치적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듬해인 2024년 튀르키예는 그리스를 향해 더욱 도발적 언사를 쏟아낸다. 집권당인 발전과 정의당(AKP) 대중 집회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의 투쟁은 적들(그리스인들)을 우리의 땅(동지중해 섬들)에서 몰아내고 그들을 이즈미르(İzmir)에서 바다로 던져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하면서 대그리스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부추긴다(Rubin 2024, 1). 이즈미르섬은 튀르키예의 대그리스 적대감의 상징으로 1922년 튀르키예의 이즈미르섬 기독교인 10만 명이 학살된 사건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중 집회에서 반그리스 감정을 고양시키는 수단으로 해당 사건을 주기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를 반복하면서 그리스와 긴장을 끌어올린 것이다.

2월 양국은 오래되고 익숙한 문제 즉 동지중해 섬들의 소유권 문제로 다시 한번 충돌한다. 이 충돌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섬들의 소유권 문제에 관한 제로섬(zero-sum) 시각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 피단(Hakan Fidan)의 경우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튀르키예의 해안선 근처 에게해의 섬들에 대한 그리스의 주권을 인정한 로잔 조약과 파리평화협정이 이 섬들을 군사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효력을 지니므로 그리스가 1960년대 이후 이를 어기고

있는 지금 조약과 조약에 근거한 그리스의 주권 주장은 모두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초강경 발언을 하자 이에게 자극받은 그리스 외교부 장관 덴디아스(Nikos Dendias)는 조약에 의거한 에게해 섬들에 관한 주권이 비무장화라는 조건에 구속받지 않으며 따라서 동지중해 섬들은 당연 그리스에 귀속된다며 튀르키예와 강하게 대립한다(Koberidze 2023, 26-27).

두 라이벌은 3월에 양국의 가장 첨예한 이슈인 사이프러스 문제로 다시 한번 충돌한다. 발단은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이프러스 관련 비타협적 발언이었다. 튀르키예 장성들을 만난 자리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1974년 튀르키예의 사이프러스 침공 시 튀르키예 군대가 좀 더 섬의 남쪽으로 진군했다면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남-북 분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이프러스 역시 튀르키예 소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다(Kokkinidis 2024, 1). 이에 그리스 정치인들과 좌파 야당인 시리자(Syriza)는 튀르키예가 아테네 선언에 합의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영토 도발을 했다고 비판하며 미초타키스 수상에게 실익 없는 튀르키예와 화해 노력을 거둬들이라고 충공세를 편다(Carassava 2024).

2024년 5월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앙카라를 공식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화해 노력의 불씨를 되살리려 시도한다. 아테네 선언 정신에 기반해 경제교류를 확산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양국 간의 갈등 문제를 국제법과 선린에 기초해서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기대와는 달리 양국 정상은 가장 민감한 이슈인 사이프러스 및 에게해/동지중해 섬들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이 대척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외교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따라서 양국은 이민자와 난민 문제 그리고 인신매매와 같은 기능적 이슈에서만 협력에 합의한다.¹¹⁾ 결국 2023년 재난 외교가 가져온 튀르키예-그리스 간 관계 개선 노력은 두 라이벌이 수십 년간 대립해 온 이슈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양국의 불가역적인 화해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만다.

V. 결 론

본 연구는 라이벌리에서 구조적 충격의 일종이라 일컬어 짓는 자연재해의 화

11) <https://www.primeminister.gr/en/2024/05/13/34202>. accessed 31 August 2024

해 고양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반영구화된 적대감으로 상징되는 라이벌리에 관한 국가들은 커다란 구조적 충격 없이는 의미 있는 화해나 라이벌리 종결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라이벌리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에 근거 일군의 학자들이 자연재해라는 충격과 이것이 가져오는 재난 외교가 라이벌 국가들 간의 돌이킬 수 없는 화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는데 본 연구는 이 주장의 문제점을 배경으로 자연재해가 촉발한 재난 외교의 한시적 화해 효과이론을 대안적 분석 틀로 제시하였다. 자연재해가 라이벌 국가간 재난 외교를 가져와 화해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라도 라이벌 국가들이 핵심적 이슈-특히 영토/영해 이슈-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슈 라이벌리(issue rivalries)에 속해있을 경우 이 화해의 노력이 이슈의 근본적 해결로 이어지지 못해 한시적 화해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펴고 이를 튀르키예-그리스 간의 두 차례의 재난 외교 사례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기존 자연재해-라이벌리 화해 상관관계 연구에 관한 공헌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본 논문은 기존의 재난 외교 이론과 이슈 라이벌리 이론을 결합하여 재난 외교의 ‘한시적 화해 효과이론’이라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기존 재난 외교를 라이벌리에 적용한 이론은 자연재해가 라이벌 국가간 대중들의 인도주의적 관심을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정치 지도자들을 압박하여 재난 외교와 나아가서는 양자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화해를 이끌어 낼수있다는 낙관적 주장을 펴고 있는데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대안 이론 즉 재난 외교의 한시적 효과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론의 핵심적 주장은 라이벌리의 절대다수가 사활적 이슈-특히 영토/영해 주권-에서 대립하고 있는 이슈 라이벌리인 상태에서는 자연재해와 재난 외교를 통해 촉발하는 화해 노력이 라이벌 국가 지도자들의 이슈에 대한 제로섬적 시각 그리고 라이벌 국가 내부의 강경파 청중 비용으로 인해 한시적 효과를 지닐 뿐 적대감 해소에 근거한 영구적 화해로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본 논문은 라이벌리 재난 외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튀르키예와 그리스 간의 1999년과 2023년에 대지진을 둘러싼 재난 외교 사례연구를 통해 양국 간 재난 외교가 라이벌리 화해에 한시적인 효과만을 준 이유와 관련 양국 지도자들이 사이프러스 문제와 에게해/동지중해 소유권 문제 관련 보유한 제로섬적 시각과 양국 내부 강경파 정치인들의 정치적 압박이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입증했다.

본 연구는 향후 라이벌리와 자연재해 간 상관관계 연구와 관련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자연재해의 충격은 라이벌 국가 간 재난 외교를 촉발하여 한시적 화해를 가능케 하지만 이들 국가 간 핵심적 갈등 이슈

해결을 통한 불가역적인 화해 달성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라이벌리들이 이슈 라이벌리인 상태에서 재난 외교만으로 수십 년간 대립해 온 핵심적 갈등 이슈의 해결을 위한 협상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적 이슈 협상 실패 이유로 양국의 지도자들이 보유한 제로섬적 세계관과 국내 정치적 제약을 지목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변수 이외에 재난 외교가 갈등적 이슈의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좀 더 다양한 변수들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난 외교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갈등적 이슈 해결을 위한 협상 국면에서 유지되는 라이벌 양국 간의 상대적 힘의 분포, 경제적 상황 그리고 양국이 맺고 있는 복잡한 동맹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재난 외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핵심적 갈등 이슈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요소들이 식별되면 재난 외교를 배경으로 갈등적 이슈 해결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인 협상 전략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libabalu, Sayyad Sadri. 2023.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Gas Conflict: Analysis of Turkey's Policy." *Geopolitics Quarterly* 18(4), 94-115.
- Akcinaroglu, Seden, Jonathan M. DiCicco & Elizabeth Radziszewski. 2011. "Avalanches and Olive Branches: A Multimethod Analysis of Disasters and Peacemaking in Interstate Rivalri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4(2), 260-275.
- Athanassopoulou, Ekavi. 1997. "Blessing in disguise? The Imia crisis and Turkish-Greek relations." *Mediterranean Politics* 2(3), 76-101.
- Bahcheli, Tozun. 1990. *Greek-Turkish Relations Since 1955*. Boulder, CO: Westview Press.
- Bennett, D. Scott. 1997. "Measuring Rivalry Termination, 1816-1992."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1(2), 227-254.
- _____. 1998. "Integrating and Testing Models of Rivalry Du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4), 1200-1232.
- Carassava, Anthee. 2024. "Greece Slams Turkish President's 'Provocative Remarks' on Cyprus." *Voice of America*, March 23, <https://www.voanews.com/a/greece-slams-turkish-president-s-provocative-remarks-on-cyprus/7539939.html> (accessed 19 April 2024).
- Christofis, Nikos. 2022. "Securitizing the Aegean: de-Europeanizing Greek-Turkish relations."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22(1), 1-18.
- Colaresi, Michael. 2004. "When Doves Cry: International Rivalry, Unreciprocated Cooperation, and Leadership Turnove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3), 555-570.
- _____. 2005. *Scare Tactics: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Rivalry*.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Diehl, Paul F. & Gary Goertz. 2001. *War and Peace in International Rivalry*.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reyer, David R. 2012. "Issue Intractability and the Persistence of International Rivalry."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9(5), 471-489.

- European Parliament. 2000. "Briefing No 7 Turkey and relations with the European Union." February 10, https://www.europarl.europa.eu/enlargement/briefings/7a1_en.htm (accessed 10 September 2024).
- Gaillard, Jean-Christopher, Elsa Clave & Ilan Kelman. 2008. "Wave of Peace? Tsunami Disaster Diplomacy in Aceh, Indonesia." *Geoforum* 39, 511-526.
- Ganapati, N. Emel, Ilan Kelman & Theodore Koukis. 2010. "Analysing Greek-Turkish disaster-related cooperation: A disaster diplomacy perspective." *Cooperation and Conflict* 45(2), 162-185.
- Goertz, Gary & Paul F. Diehl. 1995. "The Initiation and Termination of Enduring Rivalries: The Impact of Political Shock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1), 30-52.
- Grigoriadis, Ioannis N. 2022. "Between Escalation and Detente: Greek-Turkish Relations in the Aftermath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Crisis." *Turkish Studies* 23(5), 802-820.
- Hellenic Republic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3. "Delegations from Greece and Türkiye meet for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November 13, <https://www.mod.mil.gr/en/delegations-from-greece-and-turkiye-meet-for-confidence-building-measures/> (accessed 29 August 2024).
- Hellenic Republic Prime Minister Office. 2024. "Joint Statement after the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of Türkiye Recep Tayyip Erdoğan and the Prime Minister of Greece Kyriakos Mitsotakis in Ankara." May 13, <https://www.primeminister.gr/en/2024/05/13/34202> (accessed 31 August 2024).
- Hensel, Paul R. 1999. "An Evolutionary Approach to the Study of Interstate Rivalry."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17(2), 175-206.
- Heraclides, Alexis. 2011. "Imagined Enemies: The Aegean Conflict." *Mediterranean Politics* 16(2), 221-239.
- Huth, Paul K. 1998. *Standing Your Ground*.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elman, Ilman. 2006. "Acting on Disaster Diplomac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9(2), 215-240.
- _____, Jessica Field, Kavita Suri & Ghulam M. Baht. 2018. "Disaster Diplomacy in Jammu and Kashmir."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31, 1132-1140.
- Ker-Lindsay, James. 2000. "Greek-Turkish Rapprochement: The Impact of Disaster Diplomacy."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Relations* 14(1), 215-232.
- Koberidze, Giorgi. 2023. "Analyzing the Aegean Sea Crisis between Greece and Turkey and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Stability." *Journal of Politics and Democratization* 5(5), 43-53.
- Kokkinidis, Tasos. 2024. "Erdogan: All Cyprus Could Have Been Turkish." *Greek Reporter*, March 19, <https://greekreporter.com/2024/03/19/turkey-erdogan-all-cyprus-could-have-been-ours/> (accessed 10 September 2024).
- Koukis, Theodore, Ilan Kelman & N. Emel Ganapati. 2016. "Greece-Turkey Disaster Diplomacy from Disaster Risk Re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17, 24-32.
- Lee, Bomi K, Sara McLaughlin Mitchell, Cody J. Schmidt & Yufan Yang. 2022. "Disaster and the Dynamics of Interstate Rivalry." *Journal of Peace Research* 59(1), 12-27.
- Michael, Michalis S. 2007. "The Cyprus Peace Talks: A Critical appraisal." *Journal of Peace Research* 44(5), 587-604.
- Mitchell, Sarah M. & Cameron Thies. 2011. "Issue Rivalri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8(3), 230-260.
- Mustafa, Zubeida. 2006. "Foreign Policy and Earthquake Diplomacy." *Pakistan Horizon* 59(4), 29-38.
- Onis, Ziya & Suhnaz Yilmaz. 2008. "Greek Turkish Rapprochement: Rhetoric or Realit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3(1), 123-149.
- Prime Minister Office of Greece. 2023. "Athens Declaration on Friendly Relations and Good-Neighbourliness." December 7, <https://www.primeminister.gr/en/2023/12/07/33195> (accessed 29 August 2024).
- Psaropoulos, John T. 2023. "Could Greece and Turkey reconcile after

- elections?” *Al Jazeera*, May 10, <https://www.aljazeera.com/news/2023/5/10/could-greece-and-turkey-reconcile-after-elections> (accessed 1 July 2024).
- Rasler, Karen A. & William R. Thompson. 2006. “Contested Territory, Strategic Rivalries, and Conflict Escal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0(1), 145-167.
- Reinhardt, G.Y. & Carmela Lutmar. 2022. “Disaster diplomacy: The intricate links between disaster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59(1), 3-11.
- Republic of Türkiy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0. “The Assistance Made During the Marmara Earthquake No:142-August 18, 2000.” August 18, https://www.mfa.gov.tr/the-assistance-made-during-the-marmara-earthquake_br_no_142--_august-18_-2000.en.mfa (accessed 29 August 2024).
-
- _____. 2023. “Meeting of Foreign Minister Mevlüt Çavuşoğlu with Nikos Dendia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Greece.” February 12, <https://www.mfa.gov.tr/sayin-bakanimizin-yunanistan-disisleri-bakani-nikos-dendias-ile-gorusmesi-12-subat-2023-hatay.en.mfa> (accessed 29 August 2024).
- Rubin, Michael. 2024. “Turkey Threatens to Invade Greece and Armenia.”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Op-Ed, February 12, <https://www.aei.org/op-eds/turkey-threatens-to-invade-greece-and-armenia/> (accessed 20 April 2024).
- Solomotis, Samantha. 2023. “NATO Allies on the Brink of War: The Case for Implementing 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within the North Atlantic Treaty.”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9, 617-651.
- Sözen, Ahmet & Kudret Özersay. 2007. “The Annan Plan: State Succession or Continuity.” *Middle Eastern Studies* 43(1), 125-141.
- Stelgias, Nikolaos. 2023. “Monetary Partners: The Limitations of The Greek-Turkish Disaster Diplomacy in 2023.” *UPA Strategic Affairs* 4(2), 31-55.
- Stinnett, Douglas M. & Paul F. Diehl. 2001. “The Path(s) to Rivalry:

- Behavioral and Structural Explanations of Rivalry Development.” *Journal of Politics* 63(3), 717-740.
- Thompson, William R. 2001. “Identifying Rivals and Rivalrie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5(4), 557-586.
- United Nation. 2004a. “Annan submits final settlement plan for Cyprus referenda.” March 31, <https://news.un.org/en/story/2004/03/99132> (accessed 29 August 2024).
- _____. 2004b. “Cyprus misses 'historic chance' as it rejects UN reunification plan, Annan says.” April 24, <https://news.un.org/en/story/2004/04/101352> (accessed 29 August 2024).
- Vasquez, John A. 1993. *War Puzz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Distinguishing Rivals That Go To War From Those That Do Not: A Quant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Two Paths to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0(4), 531-558.
- Walter, Barbara F. 2003. “Explaining the Intractability of Territorial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4), 137-153.
- Yeger, Shay & Guy Podoler. 2022.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nter-Korean relations-Disaster diplomacy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79, 1-13.
- Yaşar, Meysune & Hilal Zobra Bayraktar. 2023. “Economic Interdependence in East Mediterranean: The Case of the Maritime Conflict between Türkiye and Greece.” *Conflict Studies Quarterly Issue* 44, 55-77.
- You, Chaekwang. 2016. “Explaining Rivalry Maintenance Process: A Modified Two-Level Game Approach to the 2nd Greco-Turkish Rivalry.”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3(1), 131-159.

Abstract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Diplomacy and Rapprochement in International Rivalries
- A Transient Effect of Disaster Diplomacy in the
Greco-Türkiyesh Rivalry -**

Chaekwang You ■ Kyonggi University

Most recently, a question of how natural disaster like earthquake and tsunami affects the dynamics among adversarial states has been a frequent topic in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rivalries. A group of scholars focusing on pacifying effect of natural disaster claim that the disaster affects public opinion between rivals such that both leaders and actors in civil society conduct disaster diplomacy by provoking a sense of humanitarian solidarity which might result in an irreversible rapprochement. The paper, however, proposes an alternative argument that the disaster has only a transient effect on the rapprochement because most of rivalries are “issue rivalries” in which two competing states maintain highly hostile relations over territorial and maritime issues. In such rivalries, leaders, despite disaster diplomacy, are restricted from reaching the rapprochement partly because of their zero-sum perspective on the issues and partly because of hard-line audience costs at home. The paper demonstrates this theoretical argument against the case of disaster diplomacy between Türkiye and Greece both in 1999 and in 2023, and highlights the implication of the case study for future rivalry research.

Key Words: Issue Rivalries, Türkiye, Greece, Natural Disaster, Disaster
Diplomacy, Transient Effect, Rapprochement

□ 논문접수일: 2024년 7월 18일, 심사완료일: 2024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5일